은, 주 시대의 종교와 정치

참고 문헌

장기근, 고대 중국의 인간상 : 신화·하·은·주 편 (서울 : 明文堂, 2006)
구융회, “제사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본 은상시대 후기 사회의 정치 · 경제 고찰”, 숭실사학 제22집(2009)
조원일, “주나라 시기의 종교적 특징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제46권 (2015)
이세현, “古代 中國에서의 天과 人間의 만남과 그 方法”, 유교사상문화연구 14 (2000)

황전악(Huang Zhanyue),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김용성 옮김, 2011)

1. 內祭 와 外祭

外祭, 則郊社是也; 內祭, 則大嘗禘是也。(禮記, 祭統 33)

外祭祀: 上帝 와 기타 자연신 등에 대해 제사를 거행하는 것
內祭祀: 조상신 등에게 거행하는 제사 (單祭, 合祭, 特祭, 周祭)

2. 사람을 희생물로 사용한 제사의 추이 변화

은 역사	무정(1250-1192), 약 60년	조경 — 문정 (1191-1102), 약 90년	제을 — 제신 (1101 — 1046), 약 40년
人牲 총 합계	5418	1950	75
1회 최다 人牲	1000	300	30
人牲이 언급된 갑골문	379편	277편	32편

황전악(김용성 옮김),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118-119면

자연신에 대한 제사 —> 조상신에 대한 제사

제사의 대상:
1. 帝 (비를 내리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는 파워)
2. 土, 社, 河, 岳, 日
3. 先公(상의 선조는 아니지만 상족이 제사를 모시는 대상)

4. 상 왕조 시작 전의 선조들
5. 상 왕조의 선왕들
6. 상 왕조의 여자선조들

사람 희생물의 감소: 노예제도 등장과의 관련?

노예 제도에 대한 증거는 희박. 순장 또는 제사 관행의 변화?

羌族(Qiang Zu; 강)

3. 천명미상 天命靡常

(詩經, 文王)

穆穆文王、於緝熙敬止。

슬기로운 문왕이시어, 경건하기 그지 없네

假哉天命、有商孫子。

하늘의 명은 크나크고, 상나라의 자손들에게 있었네

商之孫子、其麗不億。

상나라의 자손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上帝既命、侯于周服

上帝는 이들이 주나라에 복속하도록 명하셨네

侯服于周、天命靡常。

주나라에 복속하게 했으니, 하늘의 명은 변화무쌍하다네.

…

上天之載、無聲無臭。

하늘위에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네

儀刑文王、萬邦作孚。

문왕의 모범을 따르면 온세상의 믿음을 얻으리(孚=信)

尚書, 湯誓 夏나라의 걸(桀)을 정벌하기 위하여 殷나라의 탕(湯)이 부족민들을 독려하는 글

王曰:「格爾眾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왕이 말했다. "모두들 이리와서 내말을 들으라.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夏나라의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여 그를 벌하여 죽이도록 하는 것이다.

今爾有眾,汝曰:『我后不恤我眾,舍我穡事而割正夏?』予惟聞汝眾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

지금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임금이 우리들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우리 생업을 팽겨쳐 두고 夏나라를 정벌하려 한다.'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들었지만, 夏나라는 죄를 지었고 나는 上帝를 두려워하니 감히 夏나라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